동국대 불교학술원, 21세기형 '寺誌' 만든다

학술원 · 화엄사, 17일 MOU… '디지털 화엄사지' 구축

석경 · 의례 등 디지털 구현
평면 넘어 입체적 조명 가능
내년도 1~2월 경 공개 계획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지(寺誌)'는 사찰 창건 배경부터 연혁을 정리한 일종의 서책이다. 그 안에는 사찰 관련 고문서, 건축물, 문화유산, 재산 목록 등 사찰의 모든 역사와 문화가 체계적으로 수록돼 있다. 특히 불교문학 · 미술사 · 사원경제사 등 한국불교사 연구 전반에 있어서 '사지'가 갖는 위치는 매우 크다.

종이로 인쇄된 서책이었던 사지가 이제는 디지털로 구현된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사찰의 모든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디지털 사지'의 첫 시작 테이프는 지리산 화엄사가 끊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과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는 5월 17일 '디지털 화엄사지'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사업단 문화유산팀이 사업 책임을 맡은 '디지털 화엄사지'는 화엄사의 유형 · 무형 · 기록유산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통합 정리해 제공하는 21세기형 사지이다.

'디지털 화엄사지'는 △역사 △인물 △가람 △신행으로 분류돼 다양한 정보들이 플랫폼에 탑재된다. 역사에는 화엄사를 상징하는 성보인 화엄석경을 비롯해 사적 · 사료 · 설화 · 시문 · 일기 · 서간문 · 간행물들이 망라되며, 인물에는 화엄사의 역대 고승과 소임자들의 정보가 정리 · 수록된다.

가람 부문에는 사역과 전각 · 암자 · 사이버 성보관이, 신행 부문에는 승가교육 · 재가교육 · 법어 · 의례들이 망라될 예정이다.

'디지털 화엄사지'에 포함될 자료들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는 5월 17일 '디지털 화엄사지' 제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사진 왼쪽)과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사진 오른쪽)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도 방대하다. 불교학술원은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를 비롯해 국가문화유산포털,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규장각, 한국고전종합DB 등 각종 데이버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수집해 '디지털 화엄사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화엄사 관련 단행본과 학술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발표자료집도 수록하며 문화유산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자세한 사진 기록물과 동영상들도 탑재된다.

이 같은 '디지털 사지'는 기존 고문헌 사적기가 가지는 평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적인 조명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플랫폼에 축적된 정보를 활용해 메타버스 등에 적용될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은 "불교의 경우 역사 기록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기록이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불교에 대한 기록들을 제대로 정리해 불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지금까지 도량과 전각불사를 위주로 해왔지만 사지를 디지털 플랫폼화하는 불사도 이 시대에 필요한 불사라고 본다"면서 "디지털 사지를 화엄사가 처음 시도하지만 다른 교구본사 문화유산들도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장은 "디지털 방식으로 구축되는 사지는 기록유산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축척된 정보들을 콘텐츠화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디지털 사지는 앞으로 한국불교에 꼭 필요한 불사"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김종욱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장,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 도윤수 디지털사지팀장, 강선정 화엄사성보박물관 부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디지털 화엄사지'는 자료 수집과 플랫폼 구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1~2월 경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주어사지 건물지 · 명문기와편 확인

불교문화재硏 5월20일 시굴 조사 현장 설명회

조선 후기 천주학을 공부하던 학자들을 보호해줘 폐사됐던 주어사지를 시굴조사한 결과, 전각 건물지와 명문기와편이 발견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여주시(시장 이항진)는 5월 20일 여주 주어사지에서 시굴조사에 대한 조사성과 공개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어사지 시굴조사는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역사 고증 작업을 위해 사지(寺址)조사 전문기관인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5월 10일부터 실시했다. 이번 시굴조사는 주어사지의 범위와 유적의 실체를 확인하고, 향후 보존 · 정비를 위한 학술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에 따르면 시굴조사 결과 조선시대 건물지 3동, 담장, 석렬, 경작지 등 조선시대 주어사지 관련 유구와 폐사 이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숯가마가 확인됐다. 유물은 추정 '조



여주 주어사지서 발견된 건물지 기단 모습.

와이주신(造瓦以主信)' 명 기와편, 범자문 암막새편, 백자편, 상평통보 등이 출토됐다.

주어사지 중심사역에서는 건물지, 담장, 축대 등이 확인됐고, 건물지 내부에는 구들장과 온돌시설이 남아있다. 숯가마 하부에서는 건물지가 확인되며, 이는 금당지로 추정된다.

여주 주어사지는 여주시 산북면 주어리 앵자봉 서쪽 기슭에 위치하며, 창건연대 및 폐사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

해운당대사 의징의 비석에 '崇禎紀元後戊寅五月日' (1698년 5월)에 '상좌 수견천심이 세웠다'는 기록과 정조 3년(1779)에 진보적 남인 실학자인 '권철신이 천진암 주어사에서 육경과 양명학 등을 강학하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17세기 후반 이전부터 운영됐던 사찰임을 알 수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향후 주어사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 정비, 복원 등이 이뤄진다면 또 다른 여주 지역 대표 문화유적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유심작품상 이문재 · 이우걸 · 이상문 수상

특별상 신경림 석좌교수 선정 선양회, 오는 8월 11일 시상식

제20회 유심작품상에 이문재 시인의 '혼자 혼잣말'과 이우걸 시조시인의 '국어사전', 이상문 소설가의 '불호사'가 선정됐다. 특별상엔 신경림 동국대 석좌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5월 11일 '제20회 유심작품상' 시 · 시조 · 소설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유심작품상 심사위원회는 시 부문 수상자 이문재 시인에 대해 "꾸밈없는 필력과 현실 · 비현실의 거침없는 이미지의 호출, 짜임새, 마지막과 시작을 느낌안과 밖으로 끝도 없이 들락거리게 하며 이어지게 했다"고 호평했다.

시조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우걸 시조시인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통찰력과 역동적인 이미지로 시조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상문 소설가에 대해서는 "수상작 '불호사'는 매우 복잡한 사건과 여러 갈래의 긴 이야기를 간결한 호흡으로 정돈된 서사에 힘입어 완성도를 높인 작품"이라고 밝혔다.



이문재 시인



이우걸 시조시인



이상문 소설가



신경림 석좌교수

이문재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아직 멀기만 한 제 시를 눈여겨 봐주신 심사위원과 문학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밝혔으며, 이우걸 시조시인은 "운문성 가득한 우리 시대의 노래를 쓰는데 남은 생을 바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소설가는 "남은 인생을 소설가답게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상식은 8월 11일 만해마을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상담 · 음악 등 어우른 특별 체험행사 열린다

28일 명상심리상담학회 주최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회장 이필원)는 5월 2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예술공연장에서 '동행,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을 주제로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총 3부로 진행되는 이날 기념행사는 △1부 부처님 탄생의 세 가지 접근 △2부 피아노로 듣는 부처님오신날 △3부 가르침의 현대적 적용으로 나눠 이뤄진다.

1부에서는 △인간 붓다(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신화적 상상력의 붓다(김진영 서강대) △우리 시대의 붓다(최경아, 동국대)가 발표되며, 3부서는 △붓다의 명상, 아나빠나사띠 체험하기(강명희, 동국대)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생활명상수련(공응경, 세계사이버대) △명상에 기반한 고집멸도 에니어그램(박명석, 한국명상상담교육원) 등이 소개된다.

2부 음악 토크콘서트에서는 김준희 인천대 교수가 △차이코프스키 '사계' 중 4월 '스노우드롭' △슈만 - 리스트 '봄의 믿음'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비창' 제3악장을 연주한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에게는 '고집멸도 에니어그램' 무료 검사를 제공한다. 참가비는 1만 원(학생 5000원, 스님 무료)이며, 카카오톡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를 통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상담학회 '심신의학' 학술대회

5월 28일, 경주 지엄선실서

한국불교상담학회(회장 안양규)는 5월 28일 지엄선실(경주 금장4길 2)에서 '불교와 심신의학'을 주제로 제17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불교의학과 심신치유(윤종갑 동아대) △후성유전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발표 이정구 인제대) △한의학에서 본 명상과 건강(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순으로 발표하며, 논평은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이사 현암 스님, 문일수 동국대 의대 해부학 교수, 이태호 여명힐링센터장이 담당한다.

학술대회는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하며, 비대면 참가자는 오후 1시 30분 웹엑스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미팅번호는 2555 989 7426이며 패스워드 123456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담환영

■ 빙의에 시달리시는 분 !!
■ 신(神)내림 받기전에 신기운에 시달리시는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고 신기운 때문에 힘드신분!
■ 신기운을 떼어내고자 하신분!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 ·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최고. 빙의치유. 천도. 신기운 제거. 차단. 벗어나기 전문상담원 제주불교금강선원

제주불교금강선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